

## <要約>

### □ 90年代 北韓 정세의 特徵

- 북한은 '社會主義體制 維持'를 최우선적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박자식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對內 統制의 強化
  - 對南 政策의 二重的 推進
  - 對美·對日 關係 改善 追求

### □ 北韓의 現狀

-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5 개 기둥에 의해 유지되어왔음.
  - 軍部 主導의 危機管理體制
  - 主體思想
  - 엘리트 集團
  - 中國의 對北韓 支援
  - 經濟力
- 이상의 다섯 가지를 평가해볼 때, 軍部の 役割은 더 強化되고 있는 반면, 主體思想이라는 理念과 엘리트 集團의 士氣는 황장엽 망명으로 인해 致命的 打擊을 입었으며, 中國의 對北 支援은 持續될 것이나 質的으로 弱화될 것으로 보이며, 北韓 經濟는 이미 回生 不能의 段階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 北韓의 將來

- 이번 황장엽 망명 사건을 계기로 북한 내의 穩健派 立地는 弱化될 것이며, 內部 統制, 南韓 排除, 對外 宥和 政策이라는 기존의 3박자체제 유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
  - 內面 思想 檢閱 및 肅清 斷行 등 물리적인 통제 강화로 인해 不滿의 內面化 현상이 예상됨.

- 체제 유지의 관건인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開放·改革으로의 政策 轉換이 있어야 하나, 強硬派의 反對로 그 實現 可能性은 稀薄함.
  - 食糧難 解決을 위한 外部 支援 역시 小規模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食糧難 惡化는 繼續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知識人의 離反 現狀, 農民의 食糧 騷擾 事態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流血 事態 및 大量 難民 發生 등 사회 혼란이 가중됨으로써 政權 危機에 몰릴 경우,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사내 수습 방안을 놓고 路線 鬭爭 → 權力 鬭爭 → 구태타의 양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이때 김정일 정권은 정권 위기의 돌파구를 대남 관계에서 찾기 위해 對南 挑發을 恣行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음.
- 김정일 정권 붕괴시, 體制 崩壞 → 國家 崩壞 → 南韓에 의한 吸收 統一의 과정을 밟거나, 아니면 後續 政權이 들어서서 상당 기간 北韓 社會를 管理할 소지도 없지 않음.

#### □ 바람직한 對北 政策

-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先平和 共存, 後統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4者회담에 의한 恒久的 平和體制 構築이 필요하며, 南北 當局間 對話와 經協을 비롯한 多角的 交流, 協力の 活性化를 통한 相互 信賴, 同質性 回復 등 통일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急變 事態 發生에 따른 갑작스런 통일에도 대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北韓內 食糧 暴動, 大量 脫北, 對南 挑發 등에 대비한 危機管理體制의 構築이 필요함.

대북 문제에 있어 관심 분야는 ① 최근 북한 내부 정세, ② 대북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③ 4者 회담, 남북 경협, 대북 경수로 사업, 남한내 고정 간첩 문제 등 제 현안 대처 방안입니다.

## 머리말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인 통일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황장엽 망명으로 인해서 대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있는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북한 내부의 실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황장엽 망명 사건에서 보듯이 탈북자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 과연 김정일 정권의 방향이 생존이냐 아니면 붕괴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추진할 것인가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철학·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입니다. 셋째, 4者 회담을 비롯해서 남북간 경제 협력 문제, 대북 경수로 사업 문제, 또 남한 내의 고정 간첩 문제 등 諸 현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몇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중간중간에 제가 20여 년 동안 북한 사람들과 회담하면서 느꼈던 경험담도 좀 곁들여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90년대 북한 정세의 특징

1992년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와 통일 문제를 놓고 심야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대표의 첫마디가 “우리 북남간의 통일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식의 독일과 같은 통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일은 연방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당시 평양에 들어간 우리측 대표단 수행원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북의 안내원과 두 사람이 3박 4일 동안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번은 안내원이 “내가 당신

90년대 북한 정세의 특징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최우선적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서, 대내적 주민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이중적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일단 듣고보자”고 했더니 저쪽에서는 “앞으로 우리 북조선 주도 하의 통일이 되거든 내가 당신 봐주겠소. 그러나 만약 남조선 주도 하의 통일이 되거든 당신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날 꼭 좀 기억하고 봐주쇼”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1985년부터 회담 관계로 평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와 1992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1989년에 구동독이 구서독에 흡수 통일되는 걸 보았고, 1990년에 들어서 구소련과 동구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북한이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지도 모르겠다는 염려와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려가 앞서 말씀드린 언행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었고,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식량난과 관련해서 공개 총살형을 집행한 건수가 500 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극단의 공포 정치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게 하면서 체제를 끌고 갑니다.

둘째, 이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중적 대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우리 남한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접촉도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제쳐 놓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 남한의 일부 기업인들과 일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한의 한총련같은 재야 세력에 대해서는 연대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들과 손잡고 남한의 현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또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대미·대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脫 경제난·脫 국제적 고립과 북한체제의 안정을,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과거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을 통해 경제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북한 군부, 주체사상,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 중국의 對북한 지원 태도, 경제력의

할 대목이 하나있습니다. 평양 입장에서는 한총련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해서 우리 정권이 무너지고 親共 정권이 들어서면 최상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없더라도 시위가 자주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긴장이 생성되면, 그 긴장을 북한 내부로 유입해서 주민 통치에 이용하겠다는 측면이 또한 강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양수겉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정책은 자기들 대내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추진됩니다.

셋째,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미·대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90년대 접어들어 구소련 공산 정권이 무너진 후 평양측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은 미국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 안정에 관한 보장을 얻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경우, 과거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배상금으로 60억~70억 달러 정도 받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북한의 경제 난국은 거뜬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북한의 현상

이와 같은 3박자식의 체제 유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현상을 보면, 현재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 군부, 주체사상,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 중국의 對북한 지원 태도, 경제력의

먼저, 북한 군부로서, 김정일이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과 배려를 합니다. 시간만 나면, 군부대를 열심히 방문해서 군 장성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사진도 같이 찍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군부도 아직까지는 김정일에게 충성을

황장엽의 망명 이유는 주체사상이 처음에는 인간중심론이었는데, 수령중심론으로 바뀌어 김일성 부자 우상화로 변질되어가면서, 마침내는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다보니, 한 철학자의 입장에서 북한 장래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군부가 대내외 정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구호 가운데에 그동안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가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말부터는 “군인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주다보니 정책이 보수화·경직화의 성향을 띠니다. 작년에 총선을 바로 며칠 앞두고 북한 군인들이 판문점 경내에 들어와 무력 시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판문점 무력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 북한의 정무원도 당도 아니고, 군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황장엽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북한의 정책은 경직화될 것인데, 우리로서는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둘째, 주체사상으로서, 이 사상은 처음에는 ‘인간중심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다”라는 인간중심론에서 출발한 주체사상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수령중심론’으로 탈바꿈하면서, 김일성 부자 우상화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창시한 황장엽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할 것입니다. 그가 망명한 이유는 이것이 처음에는 인간중심론이었는데, 수령중심론으로 바뀌어 김일성 부자 우상화로 변질이 되어가면서, 마침내는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다보니, 한 철학자적 입장에서 북한 장래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황장엽 망명으로 인해서 주체사상은 공중 분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엘리트 집단으로서, 그동안에는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이 충성과 단합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엘리트들의 의식 구조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충성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지도 노선에 대한 불만이 짙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황장엽 망명 사건은 앞으로 북한 엘리트 집단의 심한 사상적 동요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소평의 사망으로  
인해서 중국의 對  
북한 지원 태도가  
질적인 면에서 변  
화될 것으로 봅니  
다. 즉, 양적으로 지  
원하되 질적인 면  
이 상당히 약화되  
리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 경제는  
공식적인 배급체계  
가 와해되고 암시  
장이 형성되면서  
이중 경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  
동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 정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당국의 통제  
가 이완되고 있습  
니다.

넷째, 중국의 對북한 지원 태도로서, 중국은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한국 주도 하에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남한 주도 하에 통일될 경우, 통일된 한국이 초강대국인 미국과 계속 동맹 관계를 유지하여 바로 옆에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 환경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식량과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등소평 사망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중국의 對북한 지원 태도가 질적인 면에서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으로는 지원하되 질적인 면이 상당히 약화되리라고 봅니다.

다섯째, 경제 문제인데 현재 회생 불능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온 북한 경제가 1995년에 -4.6% 성장을 기록했고, 1996년에는 추계입니다만 -3.0%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도 부족한 식량이 200만 톤이고, 공장 가동률이 27%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는 공식적인 배급체계가 와해되고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중 경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식량을 비롯한 자원을 모아서 지방에 공급해줘야 하는데 보낼 게 없으니까, “각 지방 단위로 알아서 자급자족하라”고 시달립니다. 이 지시를 받은 지방 기관장들은 관내의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통행증을 끊어주고 이것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먹을 걸 구해오라고 합니다. 통행증을 받은 주민들은 걸어가거나 열차나 트럭에 올라타 이동합니다. 우리 TV 화면을 통해서 북한의 열차 지붕 위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량 구입 목적으로 이동할 인구는 많은데 수송 수단이 절대 부족하다보니 열차 지붕 위까지 앉아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 정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당국의 통제가 이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

북한의 장래는 김정일의 리더십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성격이 불합리하여 문제가 있고, 북한을 지원할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지원도 저수준으로 신통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장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우리 언론에서 김경호氏 일가의 탈출 경위를 소상히 보도하니까, 이것을 알게 된 북한 공안 당국은 탈출 가능성있는 루트를 봉쇄할 뿐만 아니라, 주민 이동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우리 언론이 너무 앞서 보도해 일을 망쳤습니다.

### 북한의 장래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가지 기둥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김정일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다섯 개 기둥 가운데 주체사상, 엘리트 집단의 사기, 그리고 경제난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도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은 군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김정일 정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리더십 문제입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유연한 정책을 펼 경우에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이 매우 불합리하고 정책 자체가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방·개혁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변수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문제입니다. 밖에서 김정일 정권에게 식량을 비롯한 물자를 많이 지원해주면 그만큼 정권이 연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구 상에서 북한을 도와줄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입니다. 이 네 나라가 지원한다 해도, 그 수준은 저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외부 지원도 신통치 않고,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장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이번 황장엽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서 피비린내나는 숙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앞으로 몇년 사이에 북한에서 지식인들의 이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9년의 천안문사태와 같은 것입니다. 또 농민 중심의 식량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 보여줍니다. 황장엽과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황장엽이 김일성대학교 총장할 때 아끼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상 검열을 통해 의심나는 사람은 처형하거나 숙청할 것입니다. 다행히 살아남는 사람들은 군부,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라는 공안 기구를 통해 물리적인 탄압·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으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실은 열차가 달리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열차가 어떤 시점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폭발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공산 국가의 붕괴 과정입니다.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즉, 노선 투쟁, 정권(권력) 투쟁, 정권 붕괴, 체제 붕괴, 국가 붕괴의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북한 상황을 예측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사이에 북한에서 지식인들의 이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사태와 같은 북한판 천안문사태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황장엽이 우리에게 넘겨준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기성인과는 다르다. 이것을 남쪽에서 알아라”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가 개방·개혁을 선호하는 지식인들을 모아서 중국쪽에 망명 정권 수립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년 사이에 농민 중심의 식량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북한의 아사자 발생은 주로 성인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동층에 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자식이 굶어죽는 것을 볼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만있지 않고 인간 본능상 어떤 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인의 이반 현상과 식량 소요 사태가 나타나면서 사회가 혼란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대량 난민이 발생

**이렇게 지식인의 이반 현상과 식량 소요 사태로 인한 사회의 혼란과 대량 난민 발생으로, 김정일 정권이 흔들거리는 상황이 올 때, 내부 쿠데타와 대남 도발 가능성의 두 가지 방향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되면서 김정일 정권이 흔들거리는 상황이 올 때, 선택 방향을 대체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쿠데타의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대남 도발의 가능성입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사회가 혼란해지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 지도부 내에서 이 사태 수습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선 투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쿠데타로 이어집니다. 설령,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남 도발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를 보면 광신적인 독재자는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경우, 항상 돌파구를 외국에서 찾아온 경로입니다.

지난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남북특사교환회담을 할 때, 북한의 수석 대표인 박영수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당시 그 회담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불바다 발언’을 놓고 한 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회담이 시작된 지 한 10분쯤 경과하니까 북쪽에서 어떤 젊은이가 메모지를 들고서 헐레벌떡 회담장 뒷문으로 들어와서, 박영수에게 메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수가 보더니 갑자기 긴장된 얼굴을 하면서 이 메모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 가운데 하나를 뽑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귀측에서(남측에서) 우리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EU 등을 동원해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대 그것은 우리 북한의 목을 조이는 압살 정책과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쟁에는 전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불바다가 되면 여기 앉아 있는 송선생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지금 불바다 발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공식적인 전쟁 선언이나. 만약 공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역사들 살펴 보면, 광적인 독재자는 정권이 위기에 몰렸을 때, 항상 외국에서 돌파구를 찾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자, 공식성 여부만 분명히 해라!”고 몰아쳤더니, 이 사람이 즉답을 회피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 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가는 그 순간 남북간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 자기가 한 말을 이제 와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우습게 됩니다.

이렇게 즉답을 못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두번째 공세를 취했습니다. “어저께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정부를 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들의 소속이 바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소속이 아닙니까. 자, 당신들 어저께는 우리 정부의 타도를 선언하고 오늘은 남북 회담하겠다고 나와 앉았는데, 내가 보건대 정부 타도와 남북 대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당신들의 공식 입장입니까. 말씀하십시오!” 하고 추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면서 자꾸 도망다녔습니다. 이때 모니터하고 있던 뒤쪽에서 박영수 앞으로 메모지를 집어 넣습니다. 이 사람이 메모지를 보더니 옆의 동료들에게 “우리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납시다” 하더니, 일제히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은 채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하니까 시민들로부터 막 전화가 걸려오는데, “혹시 전쟁나는 거 아닙니까”를 묻는 전화들이었습니다. 그때 “원래 짚는 개는 물지 않는 법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먼저 기습하려 하는 측에서 ‘내가 전쟁합니다’라고 선언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견 협박입니다. 협박을 통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 국방부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의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휴전선에 배치된 수백 문의 자주포와 방사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방사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협박으로 지나갔지만, 앞으로 과연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럽에 북한이 휴전선에 미그기를 비롯해서 자주포와 방사포를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현재 휴전선에는 수백 문의 자주포와 방사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방사포입니다. 이번에 황장엽과 함께 망명한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우리측 요원에게 귀뜸해주기를 “휴전선에 와 있는 무기 가운데 방사포를 조심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다연장 로켓식으로, 단추를 누르면 한꺼번에 22 발의 포탄이 발사됩니다. 사정거리가 65 Km이므로 휴전선에서 발사하게 되면, 서울은 물론 수원까지 닿습니다. 특히, 이것이 휴전선을 넘어올 때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넘어오면 언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수백 문의 방사포를 한 시간 동안 눌러대면, 서울의 1/3이 불바다가 된다는 계산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북한이 6·25와 같은 전면 전쟁을 도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북한의 체제 유지 전략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인데, 만약 현 시점에서 전면 도발을 해오면 북한이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당초 북한의 전략 목표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난번 잠수함 사건, 이번의 이한영 사건과 같은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상황으로 갈 때는 지금의 대결적 남북 관계를 평화 공존으로 전환시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호 신뢰의 회복과 기반이 마련되면, '先평화 공존, 後통일' 정책 기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 바람직한 대북 정책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민족 앞에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이 단계적·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로 접근해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평화 통일 상황이라고 합니다. 둘째, 그와는 달리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점에서 통일로 갈 수 있는 상황 즉, 급변 통합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양면적 대비를 해야 됩니다.

### ○ 평화 통일 상황

평화 통일 상황으로 갈 때는 남북 관계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해가야 합니다. 첫단계는 지금의 대결적 남북 관계를 평화 공존의 관계로 전환시켜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호 신뢰의 회복과 기반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통일한다는 '先평화 공존, 後통일' 정책 기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화 공존이라고 할 때, 평화와 공존의 개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족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평화의 뿌리를 내리는 일인데, 현재 세 곳에서 한반도 평화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고, 둘째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이고, 셋째는 북한의 테러리즘입니다.

우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네바에서 합의한 대로, "너희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신포지역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함으로써, 지금 경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에서 4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술 가운데 '협상카드 세분화 전술'(Selami Slice Tactic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Selami를 수십 개로 조각내서, 상대방에게 작은 조각을 주고 자신은 2~3 배의 큰 것을 얻는 전술입니다.

者회담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6일 새벽에 뉴욕에서 4者회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만, 이것이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4월에 4者회담을 제의했는데, 10 개월 동안 북한이 여기에 대한 입장 표면을 유보한 가운데 “이 4者회담이 도대체 될 하자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좋다. 설명은 얼마든지 해줄 용의가 있으니 시간과 장소만 정해라” 했더니, 북쪽에서는 “설명은 듣되 미국 정부로부터만 듣겠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측에서 “4者회담 제안을 한미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도 공동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신을 보냈더니, 북쪽에서는 “정히 공동으로 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는데, 쌀 100만 톤을 보내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풀어라”는 조건을 딱 걸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몇달 동안 밀고 맵기다가 작년 12월 잠수함 사건 해결 과정에서 겨우 타협을 보기를 “북한이 공동 설명회에 나오는 대가로 미국이 카길社로 하여금 50만 톤의 곡물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준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양보하는 바람에 결국 북한이 공동 설명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4者회담과 관련해서 애를 먹이는 것은 고도의 협상 전술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술 가운데 협상 카드 세분화 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Selami Slice Tactics'라고 합니다. 'Selami'라는 것은 이태리의 소세지 이름이고, 'Slice'는 토막내는 것으로서 긴 소세지를 토막내어 요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이 협상 개념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자가 회담을 할 경우 막판에 가서 타결을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주고받는 양보 카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각자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 즉, 떡덩어리 하나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측 개념으로는 이 준비된 떡덩이가 하나 있으면, 적당

평화 공존과 관련해서 남북 경제협력과 경수로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측에서 기업인들의 방북, 임가공, 간접교역, 사업자 승인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 시점에 가서 이걸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으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식의 협상은 안합니다. 저 사람들은 큰 떡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이것을 수십 개의 조각을 내서, 조그만 조각 하나를 상대측에 넘겨주면서 그보다 2,3 배에 달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이런식으로 조각 조각을 가지고 협상하게 되면, 막판에 가서 그들이 얻는 이득은 떡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주고 얻는 것보다도 몇십 배의 것을 얻어냅니다. 이것이 'Selami Slice Tactics'입니다. 북한이 2 년 전에 핵협상할 때에 이 전술을 써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당시 옆에서 보니까 이 전술이 눈에 보여서 미국의 갈루치팀에게 이 사실을 참고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4者회담과 관련해서도 북측이 이 전술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작은 첫토막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설명회 토막입니다. 여기서도 북측은 협상을 다단계화해서 단계 하나를 넘을 때마다 조건을 제시해, 그것이 충족될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세분화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 공존과 관련해서는 남북 경제 협력과 경수로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측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비롯해서 임가공, 간접교역, 사업자 승인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만,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 ○ 급변 통합 상황

우리 앞에 급변 통합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아침 갑자기 김일성광장에서 일어난 지식인들의 이반 소요 사태와 식량 소요 사태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사태가 더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만일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탈출 경로는 ① 중국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로 들어가거나, ② 배를 타고 동해·서해를 거쳐 남쪽으로 넘어 오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③ 휴전선을 정면 돌파하여 남쪽으로 넘어 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법은 외교적인 조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발생한 대량 난민의 수를 추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의 비율을 조사해보면, 그 나라 생산 인구의 10% 정도입니다. 오늘날 북한 인구를 2,100만 명으로 보고 생산 인구를 계산해서 10%를 적용할 경우, 16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에 독일 정보 기관에서 사람을 북한에 투입해서, 대량 탈북 가능한 사람의 수를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65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탈출 경로를 보면, 대체로 3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쪽으로 들어가는 그룹이고, 둘째는 배를 타고 동해·서해를 거쳐서 남쪽으로 넘어오거나 일본으로 가는 선상 난민 그룹이고, 셋째는 휴전선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그룹입니다. 이 세 그룹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연변쪽으로 넘어가는 그룹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 취할 조치는, 기본적으로 난민 수용 가능 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넘어오도록 조장 정책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덜 넘어오도록 억제 정책을 취할 것이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인 억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억제 정책을 쓰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도 남한의 식량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한 식량 비축이 필요합니다. 또 수십만 명의 난민이 연변 쪽으로 몰려갈 때, 중국 정부의 취할 태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중국이 이 난민 문제를 구실 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이 개입되면 우리 입장에서 모처럼 오는 통일의 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구 상에서 통일된 독일, 베트남, 예멘의 공통점은, 통일은 어느 일방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외 상황의 급변으로 예기치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황장엽 사건에서 보듯이, 앞으로 난민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협조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정부 차원의 라인보다는 막후 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북한이 대남 도발을 자행해올 경우의 대비책으로 역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급변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 내부적 준비와 함께 미국·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양 날개 전략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 관리를 잘해서 북한 사회가 좀 안정되고 김정일 정권이 아닌 제3의 정권이 들어섰고, 그 정권은 민주성을 띠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과도 민주 정권을 상대로 마지막 통합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과거 구서독이 구동독의 마지막 정권과 협상 벌인 것처럼, 우리도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남북한 화폐의 통합, 경제 통합, 남북한의 군대 통합, 경찰 통합을 비롯하여 대충 120 개의 항목이 됩니다. 이렇게 통일 문제라는 것은 산넘어 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지구 상에서 통일된 나라가 셋있습니다. 즉, 독일, 베트남, 예멘인데, 이 세 나라가 통일 과정 상에서 보인 공통점은 통일은 어느 일방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예기치 않은 시점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들과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통일 문제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상황의 산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상황 관리·위기 관리를 중시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북한 상황에서 연착륙 정책의 실현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의 출발점이 북한의 개혁·개방화로 인한 안정화인데, 북한이 지금의 폐쇄 정책에서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질의 응답

질문1: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연착륙 정책과 개방·개혁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시죠.

답: 연착륙(softlanding) 정책은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한 것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평화 공존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북한 상황에서 연착륙 정책의 실현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착륙 정책의 출발점이 북한을 개방·개혁시킴으로 인해서 안정화시킨다는 것인데, 북한이 지금의 폐쇄 정책에서 개방·개혁으로의 정책 전환을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발표된 신년사, 지난 2월 16일에 발표된 김정일 생일 축하 연설문, 그리고 이번 황장엽의 발언 어디에도 개방·개혁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폐쇄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연착륙 정책을 그토록 강조하다가 최근에 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연착륙이라는 말 대신, 이제는 급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착륙 정책이라는 말 대신, 긴급시의 대책(contingency plan)을 지금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연착륙 정책 그 자체는 좋기 때문에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정책은 추진하되, 한편으로는 급변 통합도 대비할 수 있는 양면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부나 국가를 막론하고 이 표명된 정치(stated policy)와 실제적 의도(real purpose)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소평 사망으로 이제 의리 관계의 북중 관계는 끝났다고 보이며, 중국의 對北 지원도 아주 공식적·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對한반도 관계에서, 북한을 안보의 파트너로, 남한을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등거리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다. .

**질문2:** 우선, 최근 중국의 동소평 사망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김정일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해주시오. 둘째,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이라는 소위 경제 3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체사상의 대부로서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 사건으로 인해 내부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북한 붕괴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오.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 문제와 관련 일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정경 연계 논리보다는 정경 분리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되 정치 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민간의 활동 영역을 과거보다 확대하여 교류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오.

**답:** 우선, 동소평 사망 이후에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안보 유대와 혁명 일세대간의 의리에 기초해서, 북한의 위치가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소평 사망으로 이제 의리 관계는 종료 단계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중 관계는 국가와 국가라는 공식 관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한 지원도 아주 공식적·형식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계속하겠지만, 옛날처럼 무조건적 지원같은 것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동소평 사망 이후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권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 정세의 안정,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안보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남한을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

북한은 황장엽 망명 사건, 북한 지도부의 잇단 사망 등으로 체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재 군부를 중심으로 물리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붕괴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체사상의 공중 분해, 경제 파탄 등으로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인식을 하면서 양국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른바 등거리 정책을 계속하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황장엽 망명 사건, 또 북한 지도부의 잇단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북한의 체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기에 붕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의 기둥 가운데 군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 기관을 앞세워 물리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이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이 부너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통제력의 약화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통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적인 붕괴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붕괴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인데, 이것의 핵심인 주체사상이 공중 분해되고 있고, 하부 구조인 경제가 지금 파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정경 분리 논리는 외국에서는 가능합니다만 분단국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이 평화 공존을 거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경 분리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가 평화 공존의 관계로 가야 되고, 둘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령 북한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 보장,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등을 위해 쌍방의 회담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